



사진 속 잊히지 않는 온도

울산여고 2-1 김예슬

툑.

빛이 바랜 낡은 사진 하나가 내 삶에 불현듯 떨어졌다.

그 속에선 익숙하고도 낯선 미소가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.

사랑으로 가득한,

그 온화한 얼굴을 바라보는 엄마의 눈가에는 아직도 눈시울이 맺히는 걸 안다.

조심스럽게 다가가 사진의 먼지를 털다보면

아, 닿지 못한 그리움이 닿아 있는 온기로 변하는 순간이었다.

오랫동안 손길이 닿지 않아 차가운 냉기가 느껴져야 할 사진에 따뜻함이 느껴지는 건 왜일까.

나조차도 이유를 모르는 내 눈물은 '알 수 없음'으로 생기는 벽이 그 이유일까.

여전히 우리의 곁에 남아 있었다면, 훨씬 뜨거운 온기를 느낄 수 있었겠지.

보고 느껴보지 못한 사람과의 있지도 않은 추억을 떠올리고픈 마음.

참혹하고도 우울했을 과거의 날들이 어찌면 나에게 더 따뜻한 날들을 주었고… 줄 것이라고,
그렇게라도 위안을 삼아본다.

할머니의 온도가 담긴 사진은 애써 마음속에만 간직하며 햇살 아래서 열심히 살아봐야지.

